

의약분업				번호: III - B - 4	
제 목	국문	의약분업 정책과정 평가			
	영문	Evaluation of Policy Process in Separation Policy between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Drug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선희 <sup>1)</sup> , 정상혁 <sup>1)</sup> , 정우진 <sup>2)</sup> , 고광욱 <sup>3)</sup> , 신의철 <sup>4)</sup> , 박시운 <sup>5)</sup> , 황진미 <sup>6)</sup> 1)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4)가톨릭의대 예방학교실, 5) 한국누가회, 6)인천기독병원 임상병리과			
	영문	Sunhee Lee <sup>1)</sup> , Sang Hyuk Jung <sup>1)</sup> , Woojin Chung <sup>2)</sup> , Kwangwook Koh <sup>3)</sup> , Si Woon Park <sup>4)</sup> , Euichul Shin <sup>5)</sup> , Jinmee Hwang <sup>6)</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up>1)</sup> ,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up>2)</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sup>3)</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4)</sup> ,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sup>5)</sup> ,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Incheon Christian Hospital <sup>6)</sup>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이선희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2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의약분업 도입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정책의 성패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급기야는 건강보험 재정과판으로 연결되는 등 정책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정책과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추후 보건의료정책의 교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p> <p>이에 본연구는 의약분업 정책과정을 세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의약분업 정책과정을 조망하고 이론적 준거들에 의거하여 단계별, 구성요소별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자료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각종 정책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2차자료들을 활용하였다.</p> <p>정책단계 분류는 Anderson(1979)과 Jones(1984)의 분류 및 이를 종합제시한 정정길(1997)의 분류 체계 틀을 빌려 정책의제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적 특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였다.</p>					